

COMMISSIONERS 위원동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3월 15일자로 신임 중재부장 13명이 위촉되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현직	임기
서울제1중재부	이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8.8.31.
서울제2중재부	오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8.8.31.
서울제3중재부	오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10.12.
서울제4중재부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10.12.
서울제5중재부	권혁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3.30.
부산중재부	박종훈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광주중재부	최수환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대전중재부	방승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8.8.31.
강원중재부	김동국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충북중재부	양태경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전북중재부	박강희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7.3.30.
경남중재부	정재규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제주중재부	변민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3.30.

• 한겨레 <서울&> 정기 기고

손관승 위원(서울제6중재부)이 2016년 3월부터 <한겨레> 지역밀착형 섹션신문 '서울&'에 기고를 이어가고 있다. 손관승 위원이 기고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코너는 독자들의 고민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는 독자참여형 콘텐츠이다.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임명

한기봉 위원(경기중재부)이 2016년 3월 2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에 임명됐다. 한기봉 위원은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글쓰기 연습>을 강의한다.

• <미디어칼럼의 이해> 발간

김선남 위원(전북중재부,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이 <미디어칼럼의 이해>를 발간했다. 이 책은 예비 칼럼니스트를 위한 글쓰기 훈련 방법과 윤리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EWS 위원회 소식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3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9명)과 시정권고위원(7명)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이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인터넷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의 인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

▲ 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 조동수(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이수영(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창호(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송중문(전 중앙일보 이사) ▲ 홍문기(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정정목(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 민말순(창원YMCA 이사장)

시정권고위원

▲ 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 김재봉(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유세경(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이태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종렬(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 이혁주(전 조선일보 이사)

계간 「언론중재」 2016년 봄호 발간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통권 138호)가 3월 30일 발간됐다. <Focus on Media> 섹션에는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라는 대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애 연구원의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 언론의 법적 개념도 바꿀까?', 박아란 언론학 박사의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김균수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이용자는 저널리스트? MCN의 급부상과 미디어 리더러시' 제하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는 '거대 글로벌 뉴스 플랫폼의 쇄도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 전용준 변호사의 글이, 판례토크 코너에는 '생방송 인터뷰 보도의 객관성 판단 기준은?'을 주제로 한 노만경 변호사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